



플라리스 컬렉션의 새로운 모험,

플라리스 데이트

1968 년, 메모박스 플라리스에서 영감을 얻은 플라리스 컬렉션은 예거 르쿨트르의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실용적인 기능, 빈티지한 디자인 코드, 크로노미터 성능의 현대적인 기준으로 구별되는 플라리스가 이제 딥 그린 다이얼로 흥미로운 일상에 새로운 컬러를 더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시그니처 모델인 메모박스 플라리스는 1968 년 출시 이후 독특하고 실용적인 워치메이킹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다이버 워치는 모든 스포츠 워치 컬렉션의 필수 모델이지만, 메모박스 플라리스처럼 수십 년 동안 사랑받아온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8 년에 출시된 플라리스 데이트는 해당 라인의 인기 모델 중 하나인 1968 년 메모박스 플라리스에서 영감을 얻어, 바닐라 컬러의 야광 물질 코팅이 선사하는 섬세한 빈티지 감성으로 오래 지속되는 디자인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2022 년, 플라리스 데이트는 그라데이션 딥 그린 다이얼로 출시됩니다.

다양한 텍스처 마감이 돋보이는 래커 처리한 이중 그라데이션 다이얼은 매력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탁월한 가독성을 선사합니다. 오팔린, 그레이 및 선레이 패턴을 혼합한 균형 잡힌 표면은 움직이는 내부 베젤 링에서 미닛 트랙에 이르기까지, 다이얼의 핵심 디테일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라데이션 컬러는 라이트 올리브에서 버던트 레인포레스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반사광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보여줍니다. 반투명 래커 코팅은 다이얼에 매혹적인 깊이를 더해, 바닐라 컬러의 다이얼 인덱스가 선명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플라리스 컬렉션의 핵심은 극한 환경에서도 견뎌내는 뛰어난 수준의 성능입니다. 2 시 방향의 크라운으로 제어되는 움직이는 내부 베젤은 진정한 다이버 워치의 핵심 기능으로, 착용자는 이를 통해 타이밍 오프셋 또는 카운트다운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플라리스 데이트에는 200m 방수



기능을 갖춘 투명 케이스백이 장착되어, 도시나 바닷속 깊은 곳에서도 집에서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경 42mm의 폴라리스 데이트 케이스는 새틴 마감 표면과 케이스 러그의 폴리싱 챔퍼, 슬림 베젤을 통해 섬세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위치의 플렉시글래스 다이얼 크리스탈을 연상시키는 글래스 박스 크리스탈이 다이얼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폴라리스 데이트는 간편 교체 시스템이 장착된 그린 러버 스트랩과 함께 제공되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브레이슬릿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스트랩은 몇 초 만에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데이트의 새로운 그린 다이얼은 견고한 무광 마감 케이스로 강조된 전천후 타임피스 특성을 보여줍니다. 바닐라 컬러의 수퍼-루미노바® 인덱스를 통해, 소중한 유산과 유구한 디자인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42mm 스틸 케이스에는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최신 세대의 칼리버 899가 장착되었습니다. 폴라리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흥미로운 일상을 빛내줄 세련된 스포츠 워치입니다.

폴라리스 데이트는 부티크 에디션으로 선보이며, 한 달 동안 예거 르쿨트르 이커머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폴라리스 데이트

크기: 42mm x 13.92mm

칼리버: 기계식 오토매틱,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99AB

기능: 시간, 분, 초, 날짜, 내부 회전 베젤

파워 리저브: 70시간

진동 수: 28,800회

다이얼: 오팔린, 그레이, 선레이 패턴 마감이 더해진 그라데이션 그린 래커

케이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백: 오픈

방수: 200m

스트랩: 교체 가능한 그린 러버 스트랩

제품 번호: Q906863J - 부티크 에디션

STELLAR ODYSSEY 소개

2022 년 예거 르쿨트르는 인류의 시간 측정 방식의 근원에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태의 문페이스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 군시차, 스카이 차트, 달의 교점 주기와 근점 주기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시계 컬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몰입형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와의 콜라보레이션, 천체를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의 매혹적인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테마 이벤트 시리즈,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를 선보입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